

다이쇼인 절: 인왕문(니오포문 문)

인왕문은 다이쇼인 절로 들어가는 입구에 해당하는 문으로 세속적인 세계와 절의 신성한 경내를 구분짓는 역할을 합니다. 출입구를 지키는 험상궂은 인상의 두 수호신(인왕상)은 악을 물리치고 재앙으로부터 절을 보호한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수호신은 입을 벌린 채 ‘아’(산스크리트어 음절 문자의 첫 번째 소리)를 발음하고 있으며, 오른쪽에 있는 수호신은 입을 거의 다문 상태에서 ‘흠’(산스크리트어 음절 문자의 마지막 소리)이라는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 두 글자의 조합은 불교에서 모든 것의 집대성을 나타내며, 기독교에서의 그리스 문자 알파와 오메가가 상징하는 의미와 비슷합니다. 본래 다이쇼인 절의 인왕문은 1887년에 절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이 소실된 화재로 인해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인왕문은 1939년에 느티나무 목재만을 부재로 사용하여 지어진 것입니다.